광역상수도 확대 전환 공감

익산시, 시민공청회 개최… 기존 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 비교 분석

익산시가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만들었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열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돗물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수십 년간 익산시 수돗물을 책임져온 정수장의 노후 현황을 알리고, 공급 체계 일원화 등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김경섭 금강방송 보도제작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송방섭 익산시 상수도과장과 박종대 익산시의원, 김대하 전북대교수, 정용원광대교수, 김형석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익산시 상수도 공급 체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 질문에 답변했다.

수돗물 공급 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물을 관리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분류된다. 익산시 일원 광역상수도는 용담호를, 지방상수도는 대아저수지를 각각 수원으로 한다.

익산에 인접한 전주와 군산, 김제, 완주가 전 구간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익산은 현재 일부 구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혼합급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동 지역 등 34%는 아직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혼합급수 체계를 통해 별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지방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금강정수장과 신흥정수장 시설 노후화가 점차 심각해지며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금강정수장과 신흥정수장은 내용연수 30년을 훌쩍 넘겨 각각 70년, 49년째 사용 중이다. 축조된 지 70년이 지난 신흥 보조수원지 역시 퇴적물이 쌓여 해마다 조류 발생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수 약품 처리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수인 시점에서 '기존 시설 신설·보수'와 '광역상수도 전환'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시설 보수(1,697억 원) △표준정수처리 재건설(2,428억 원) △표준·고도 정수처리시설 추가 건설(2,796억 원) 등 3개 안이 도출됐다. 다만 이 경우 대규모 사업비를 상수도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광역상수도 전환 시에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3,300원 가량(톤당 135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요금은 추후 익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을 통해 낭비되는 물을 줄이고 전환 시 장기할인 등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민과 정치권, 학계 등이 참석한 시민공청회에서는 광역상수도 전환 여부에 관해 각기 다른 긍정·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물 주권 상실이나 가뭄 등 비상 상황 시 대처, 수질 비교, 노후관 교체 공사 선행 필요 등 다양한 찬반 의견을 3시간 동안 주고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재활용 활성화'

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장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이 추진되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치킨로드 등 사업 현장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는 11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닭요리 전문점 특화거리인 '치킨로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치킨로드' 조성사업은 중앙동 구도심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와 향토기업인 ㈜하림, 계화림 운영기관인 ㈜엔바이콘, 중앙동 치킨로드 상생협의체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듣고 사업참여자의 입장이 되어 필요한 점과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해보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은 "호남 철도 교통의 관문인 익산역 주변의 문화·관광 자원과 결합하여 음식 특화거리 '치킨로드'가 조성된다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지인 수도산공원과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지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수도산공원은 특례사업지 35만7,151㎡ 면적 중 76.7%인 27만3,856㎡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공원 내에는 수영장, 도서관, 바닥분수, 정원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2024년 6월 중 준공예정이며, 금마서동생태관광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수변림, 조류관찰대, 생태놀이터, 생태학습원, 에코캠핑장 등 시설이 조성되어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허전 익산시 부시장, 정수시설·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익산시가 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점검 시설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는 11일 허전 익산시 부시장이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정수시설과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전 부시장을 필두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해 금강정수장과 신흥정수장의 건축, 전기, 기계설비 분야 등 시설물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와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 관련 사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위험요인 조기 발굴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129개소를 점검 중이다.

지난 4월부터 129개소 중 90개소 이상을 점검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허전 부시장은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해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여름 휴가철, 해외 유입 감염병 주의하세요"

군산시보건소, '해외 방문 시 MERS·AI·뎅기열·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강조

군산시보건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따른 현지 유행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지냈던 각종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를 방문한 뒤 해외 유입 감염병,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뎅기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6월14~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주요 전파 원인은 중동지역의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며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중동 현지에서 낙타 타기, 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을 자제하고 진료 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최근 미국에서 젖소농장의 동물인플루엔자 A(H5N1)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소와 접촉했던 농장종사자 2명의 인체감염 사례 보고로 국내에서도 감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호흡기 증상 없이 안구 불편감(결막염), 충혈, 분비물, 이물감 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등과의 접촉 및 분변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으로 발생 가능하며 드물게는 사람 간의 전파까지 이뤄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닭, 오리, 계란 등은 75℃ 이상에서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며,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파된다. 이 모기는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며 위험 국가 방문 중 감염되면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연, 발진, 안와통증,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간여행 축제 '군산스타' 오디션 공연

군산시는 2024 군산시간여행 축제 시민참여 공연팀인 '군산스타' 선발을 위한 오디션 방식의 공연을 6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이번 '군산스타' 오디션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구)시청광장 무대에서 진행되며, 우천 시엔 장미공연장으로 변경되어 열리게 된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미 8일과 9일 오디션이 2회 개최되었으며 오는 15, 16, 22, 23, 29, 30일 6회가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스타팀 선정은 6월 매주 주말 열렸던 오디션 참가자들 중 시민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팀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디션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최종 선정된 10개 팀은 군산시간여행 축제에서 공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민관협치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익산시가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11일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4 익산시민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개강식은 일정 안내와 팀 소개, 아이디어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민아카데미는 시민, 시의원, 공무원이 팀을 이뤄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민관협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1개 팀이 참가제안서를 제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기관일치(기업유치&관광자원개발&일자리창출&지역활성화) 만들기 △서동공원 관광명소 만들기 △충의(忠義)의 고장 익산 알리기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6개 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팀은 약 2개월 동안 워크숍, 선진지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